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27화)

“왕중왕이 되실 분인데 당연히 큰절을 올린 것이외다”

4절: 화생으로 사망을 이긴 피

- 1) 제주도 훈련병 시절
- 2) 광주 상무대 훈련소에서
- 3) 젊음을 불태운 11년의 군장교 생활
- 4) 일등 중,고등학교를 세우다

5절: 영적 동정녀인 다섯째 천사와 둘째 아담인 일곱째 천사

- 1) 두 천사의 생수체형
- 2) 이한 검의 안찰과 환돌 위에 오사
- 3) 은혜 간직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
- 4) 영생이 있기에 상고하는 성경책이란

3) 은혜 간직하는 법 스스로 터득

(전호에 이어서) 그런데 또 다른 날에 전과는 또 다른 할아버지가 또 갑자기 육군 중위 장교복 차림의 일곱째 천사 앞에서 세뱃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한 번도 아니고 또 그러는 고로 무슨 영문인지 알고 그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 젊은 것에게 세뱃절을 하시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이 절 이상하게 보니 창피하잖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공대말로, “아닙니다! 왕중왕이 되실 분인데 당연히 큰절을 올린 것이외다. 관상과 골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왕이 될 제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슴에는 북두칠성의 점이 있고 양손에는 임금 王(왕)의 손금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광스럽고 귀한 만남을 절로써 예를 갖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씀하시는 듯보여서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니 세상이자 왕중왕이 되실 분이 라는 것이 노출되면 탄압 있으면 죽이려

고 할 것입니다.”하고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할아버지들과의 인연은 훗날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이 오십이 다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밀실에 들어가서 무서운 연단을 받을 때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결국 이긴자, 즉 전지전능한 완성자가 되기까지의 사명감을 불어넣어준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영모님이 늘 동행하면서 은혜가 연결돼

길을 걸어가나 기차를 타고 가나 일곱째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찬송을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다섯째 천사로 변신한 하나님께서 일곱째 천사 앞에 나타나시어 늘 함께하면서 따라다니시는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 영모님의 모습이 눈에 박혀 있는고로 여기를 봐도 다섯째 천사의 얼굴이요, 저기를 봐도 이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을 봐도 다섯째 천사로 화하여 보기에 다른 생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다섯째 천사가 되는 영모님이 따라다니고 은혜가 되니까 그 당시 박기호 전도사한테 “영모님이 따라 다니시지요?” 하고 묻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다섯째 천사인 영모님이 늘 따라다니니까 전도사 정도면 자신보다 나은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박기호 전도사의 눈이 동그래지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천사에게 나타나시더니 ‘셋!’ 하면서 말하



논산 삼거리 전도관 식구들과 함께한 기념 사진 (맨 앞의 우측에서 두 번째 조희성님)

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박기호 전도사가 “영모님이 따라다니시 다니요?” 하고 말을 하기에, 일곱째 천사는 “아니, 전도사님은 영모님이 따라다니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고 재치 있게 말을 돌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겋벌겋 웃는 것입니다.

전국에 수많은 전도관이 세워지고 거기서 예배를 보는 교인들이 150만 명이 되었지만, 150만 명 중에 오직 한 명만이 다섯째 천사를 영모(靈母)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섯째 천사는 일곱째 천사의 영적 엄마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천사의 형상을 하고 일곱째 천사와 함께 하시면서, 일곱째 천사의 마음속에 거하는 양심이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랑을 이기는 완성자로 거듭날 때까지 영적 동정녀로서 해산의 수고를 하신 끝에, 삼위(三位)의

하나님이 일곱째 천사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하나로 즉 삼위일체로 회복하여 6천 년 전에 잃었던 에덴동산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4) 영생이 있기에 상고하는 성경책이란

성경(聖經)이 인간들에게 귀하고 소중한 책인 이유는 그 책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 중에 뜻이 에덴동산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지 아니하고 희락 가운데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에덴동산을 회복하는 주인공을 구세주라고 했습니다.

에덴동산을 회복하겠다는 말은 옛날 옛적에 에덴동산이 무너져 없어졌다 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동산이 무너진 자리에 사방이 지배하는 죄악

세상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죄악 세상이란 마귀가 집권하는 세상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에덴동산을 회복할 구세주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모양으로 역사하게 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입장에 계셨던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 구세주는 백합화라든지 감람나무 가지라는 등 식물로 비유되어 있는가 하면 양과 같은 동물로 비유하고 있다는 정도는 약간만 영안이 열려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들이라야 볼 수 있는 성경 속에 기록된 오실 구세주는,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세상을 구원하려 오겠다고 했는데 그 구세주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인간의 몸을 빌려 입고 오신다고 사도행전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의 자격을 갖추기까지

그런데 성경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몸을 빌려 입은 하나님께서 구세주의 자격을 갖추기까지 어떤 과정의 연단을 겪고 어떻게 하여 영생체로 거듭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구세주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정체를 소멸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죄를 소멸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면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요 사랑을 삼키는 승리자 구세주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성경에 없는 새로운 말씀을 한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세주 자격을

획득하기까지 마귀에게 사전에 노출되면 안 되었던 천기에 해당하는 비밀이 있었으며 게다가 아담 이후 6천 년간 마귀와 싸워 백전백패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대적 마귀를 이기는 비결을 캐내야 하는 당신의 불리한 입장이 고려된 것입니다.

다만 성경 요한계시록에 구세주 자격을 갖추게 될 자를 ‘이기는 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 이기는 자에게는 첫째 생명과일을 주어 먹게 하며, 둘째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며, 셋째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환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겨져 있는 새 이름을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으며, 넷째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며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며, 다섯째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며, 여섯째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며, 일곱째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고 일곱 번에 걸쳐 구세주로서 이기는 자의 특징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언급된 이기는 자는 도대체 무엇을 이기기에 일곱 가지의 특징을 갖추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믿음으로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교인들을 가리켜 이기는 자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마귀를 기만하여 방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전략이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영생의 도는 딱 21일만 제대로 하면 완성이 된다. 더도 덜도 없이 오직 21일이다. 21일만 부처님을 사모하고 놓치지 않으면 부처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21일만에 성도하기’라는 글을 쓰기로 하였다. 필자는 21일간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줄 것이다. 그대로 따라만 하면 누구나 부처를 이룰 수 있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 - 편집자 주

승리제단은 나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기 위한 전쟁을 하는 제단이지 타인과 싸우는 제단이 아니다

자유율법을 지켜야 성도(成道)하게 되고 곧 구원을 얻게 된다. 자유율법이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몸과 마음과 생명을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긴 자는 자기 자신이 이려고 저려고 할 수 없으며, 모든 일들의 행위와 판단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에 주장 해주시고 판단해주세요.”라고 해야 한다.

21일 만에 성도(成道)할 수 있는 승리제단은 나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기 위한 전쟁을 하는 제단이지 타인과 싸우는 제단이 아니다. 마귀들이나 타인과 싸우고, 타인의 허물을 나무라고, 타인을 향해서 이려고저려고 말하지 이제 그대로 우리 승리제단에서는 자신과 더불어 싸워서 자신을 이겨야 이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자신과 더불어 싸워서 자신을 이기는 것이 자유율법을 지키는 승리제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승리제단에서 성도하고자 하는 식구들은 자신과 더불어 싸워서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그대로 맹렬한 투쟁을 하는 가운데, 상대방이나를 욕을 하고, 상대방이 나를 때리고,

이제 상대방이 나를 짓이기고 멸시천대를 해도 대항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자유율법을 온전히 지켜 영생을 쟁취한 승리자 생미복부처님께서는 밀실에 들어가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한테 마귀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돌팔매질을 맞고, 구두발에 채이면서 갖은 시련을 당했지만 언제 한번 자신을 때리는 사람을 향해서 대항하여 본 적이 없고, 자신을 향해서 욕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마귀요, 이제 그대로 자신이 죄가 되므로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 곧 내 허물처럼 여기게 되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했다는 것을, 승리자 생미복부처님께서 신앙 간증담으로 말씀하신 바 있다.

형제의 죄가 내 죄요, 형제의 잘못이 내 잘못이요, 이제 형제의 사정이 내 사정인고로 그러므로 형제가 잘못된 것을 보면 곧 내 잘못으로 여기면서 이제 그대로 열심히 자신을 누워치고 회개하면서 이제 그대로 자신의 죄를 회개 시간이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죄를 짓는 잘못하는 형제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마귀가 죽어지면 절대로 상대방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다.

성도(成道)하는 이 길은 자존심을 죽이는 길이다

21일에 성도(成道)하는 이 길은 자신을 짓이기고 자신을 죽이는 길이지, 타인을 나무라거나, 타인을 가르치거나, 타인을 이제 그대로 권고하는 그런 길 이 아니다. 이 길은 자신이 자신을 다듬어서 가는 길이므로 이제 그대로 형제의 잘못이 자기 눈에 떠면 그것은 곧 자기 속에 그런 마귀가 있는고로 보여진다는 생미복부처님의 신앙 간증담을 순간 떠올려야 한다.

음란죄를 짓는 사람이 눈에 떠면 바로 음란죄가 자신 속에 있는고로 보이는 것이지, 자신 속에 음란죄가 없으면 그에게 보여질 수가 없는 것이다. 대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나라는 의식을 짓이기지 않고 항상 잘난 척하고 남의 허물만 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아했다는 것을, 승리자 생미복부처님께서 신앙 간증담으로 말씀하신 바 있다.

그러므로 성도(成道)하는 이 길은 자존심을 죽이는 길이다. 자신의 여러 가지 못마땅한 마음이 나오는 자체가 자신 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즉각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기는 자유율법으로 그 잘못된 게 내 눈에 떠면 바로 ‘내 속에 이제 그런 음란 마귀가 있구나!’ 하고서 이제 그대로 ‘음란마귀를 뿌리째 뽑아서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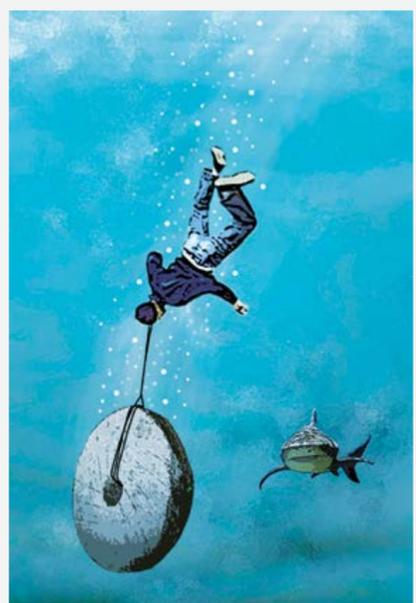
멸소탕’ 하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다.

세상 말 가운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처럼 자기 똥 구멍이 구리니까 남의 똥구멍도 구린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세상 격언이지만 진리다. 죄를 저 본 적이 있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남의 죄가 눈에 떠는 거지, 이제 그대로 죄를 안 짓는 사람은 남의 죄가 눈에 안 떠는 것이다. 생미복부처님의 간증담에 의하면, “이 사람이 이긴자가 된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 보기 싫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미운 사람도 없고 못 마땅한 사람도 없고 이제 노인네를 봐도 이쁘고 젊은이를 봐도 이쁘고 어린 아이들을 봐도 이쁘고 똥을 싸도 이쁘고 이제 무슨 짓을 해도 아름답게만 보인다.”고 하신 것이다. 이것은 생미복부처님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이지 마음이 더러워져 있다면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들을 메고 비탈속으로 들어가는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

파란색 안경을 쓰고 이제 흰 것을 보면 하얗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얀 것도 파랗게 보여지는 법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로 21일에 성도(成道)하고자 하는 분들이 마치 안경을 쓰고 있는 것

처럼, 그 마음이 이제 그대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의 마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대로 그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다.



한 생명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들을 메고 바다로 들어가게 된다

승리자 생미복부처님은 현재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 죄인을 구원하러 온고로 승리제단에 한 사람을 전도해서 데려오기가 무척 힘들다고 하신다. 그래서 수년간을 거쳐서 체계와 수년간에 걸쳐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어가지고 겨우 이제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조금 잘못했다고 내쫓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 마귀 역사라고 하신다.

각자가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움직여야지, 한 생명을 실족시키면 연자 맷들을 메고 바다로 기어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다. 그러니까 한 생명을 실족시키면 구원이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 승리제단에 한 생명을 전도하기가 하늘 별 따기보다도 힘든데 바로 그렇게 힘들게 전도해 온 사람을 이제 그대로 조그만 한 허물을 가지고 이제 그대로 실족시킨다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신다고 한다. 내 죄를 떨어버리기가 바쁘고로 내 죄를 이제 그대로 정리하기가 바쁘고로 이제 그대로 이 세상에 내 눈에는 전부가 다 나보다 월등하고, 전부가 나보다 깨끗하고, 나보다도 아름답고 의롭게만 보이지, 나보다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안 보여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투쟁을 하니가 결국은 나중에 이긴자가 되었다는 생미복부처님의 간증담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하겠다.*

박태선기자

21일 만에 성도(成道)하기 <13일째>